

새 광주미협회장 피선 서예가 정광주씨

“시민참여 아트페어 메세나 운동 추진”



서예가 정광주(54·사진)씨가 제8대 광주미술협회장에 선출됐다.

정씨는 23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광주미술협회 8회 회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 1천141표 가운데 340표를 얻어 267표를 얻은 정순이(54·서양화) 후보를 73표 차로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씨는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인터뷰를 통해 “미술협회 회원 전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트페어로 진행하는 한편 미술가와 후원인을 연결하는 메세나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광주미협이 회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정체돼 있었다”며 “여러사람들의 지원을 모으기 위한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원로 중진들을 중심으로 회원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등 협회에 힘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을 꼭 맞는 미술인들의 위상강화를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몇몇 미술인들이 광주시와 문광부를 상대로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토론회와 논의를 거쳐 협회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미술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협회차원의 의견을 내겠다는 그는 “예술단체로서 미술이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정씨는 조대부교와 조선대학교 사법대학 영어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전, 전남도전 초대 작가를 지냈으며 광주·전남 서예전을 회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06 지역 문화·예술계 결산

④ 문화재

전남 고대사 연구 지평 넓혔다

고흥 안동고분, 나주 영동고분 등 굽직한 발굴 성과가 나온으로써 전남 지역 고대사의 지평을 넓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역사 조명 작업이 활발했던 한 해였다.

전남대 임영진 교수팀이 지난 4월 발굴한 안동고분에서 금동관, 금동신발, 환두도 등 지배세력을 상징하는 위세품(威勢品)이 출토된 것은 지역 고고학계로서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특히 이 같은 유물과 유적은 5세기 초반 마한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고대문화권과 더불어 고향반도에 독자 정치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5~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주 영동고분에서 무더기 발굴된 15개체의 생생한 고대 인골은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고장자(被葬者) 간 가족관계는 물론 영산강 고대세력의 친족구성 형태와 지배세력의 권력계승 양상까지도 가능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됐다.

특히 마한 문화권의 특징인 대장묘제(多葬墓制·한 고분에 다수의 고장자를 안치하는 묘제)를 확인됨으로써 마한사회에 존재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문화재의 특성상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칼날은 어김없이 양립된다.

1세기~5세기에 걸친 주거지 240여개와 유물 500여점 등이 쏟아진 순천시 덕암동 아파트 건설 예정지 유적은 개발과 보존을 놓고 현재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유적은 청동기에서 통일신라까지 다양한 유형의 출토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소규모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보존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14세기 중·후반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선박 2척을 중국 산동성 봉래시에서



올해 광주·전남 문화재계는 다양한 발굴작업과 함께 고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유물과 유적들이 다수 출토되는 등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사진은 고흥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위)과 금동신발.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흥 안동고분·나주 영동고분 등 굽직한 발굴 성과

광주읍성 터 개발 논란…마한박물관 건립 추진 시동

광주 읍성터가 문화전당 부속 건물이 들어 설 예정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해제 후 복원, 원형 현장 보존 여부를 놓고 문화전당 건립 팀과 문화재위원회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역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활발한 보존과 조명작업이 이뤄진 것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57건으로 가장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했다.

목포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 등이

지난 2001년 7월1일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후 근대문화유산이 300건을 불과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